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<b>배포일시</b>	2018. 5. 9(수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
<b>담당 부서</b>	자동차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박대순, 사무관 정송이, 주무관 김병오 • ☎ (044) 201-3835, 3838, 3839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5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다...10일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· 여론조사 결과 발표...국민 62% 숫자추가방식 선호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(안)에 대한 관련기관, 업계·전문가,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(목)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\*를 개최한다.

\* (주최) 국토교통부, 국회의원 황희 (주관) 한국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, 공공디자인재단

-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 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,
-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('16. 10.~)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\*을 마련하여, 경찰청·지자체·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('18. 3.)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('18. 4.)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.

\* (등록번호체계)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 
 (디자인·서체)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·홀로그램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,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

□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,

-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(총 36,103명)의 78.1%, 오프라인 응답자(유효표본 600명)의 62.1%가 선호하였으며, 경찰청 및 지자체\*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17개 시·도 중 의견을 제출한 6개 지역(경기, 광주, 전남, 충남, 부산, 제주)이 모두 선호

<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>

항 목	온라인 의견수렴	오프라인 여론조사(한국갤럽)
조사기간	'18. 3. 11. ~ 3. 25.(2주간)	'18. 4. 4. ~ 4. 17.(2주간)
조사대상	36,103명	유효표본 600명(18~69세)
조사방법	국토부 홈페이지 (온라인 투표)	전국 지역별 층화조사 (일대일 면접조사)
조사 결과	번호체계	숫자추가 : 78.1% 한글받침추가 : 21.9%
	디자인	숫자추가 : 62.1% 한글받침추가 : 37.9%
	서체	현행 : 42.6% 변경 : 57.4%
	현행 : 44.5%, 변경 : 51.2%, 미 선택 : 4.2%	현행 : 47.0% 변경 : 53.0%
	현행 : 32.2%, 변경 : 67.8% * 디자인 '변경' 선택한 응답자에게만 질문	
비고	-	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서 ±4.0%p

- 한편,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(국가상징문양 및 '한국형 FE 서체' 도입 등)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에 따라,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, 번호 확보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,

-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, 이후 추가 선호도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(안)을 제시할 예정이다.

- 이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(前 한국교통학회장)의 주재로 경찰청, 교통·공공디자인 전문가, 언론사,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,
  - 지자체,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(안)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(안)을 확정할 계획이다.
  -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38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 공청회 개요**

- (時/所) '18.05.10(목) 14:00~16:00 / 국회 의원회관(2층 제1소회의실)
- (참석) 황희 의원, 국토부 제2차관, 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경찰청, 지자체, 도로교통공단, 자동차산업협회, 시민단체 등 100여명
- (주최/주관) 국토교통부·국회의원 황희 /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2
- (주요내용) 번호판 개선 추진경과 및 도출(안), 온·오프라인 여론수렴 결과, 토론 및 의견수렴
- 토론자 : 총 7명(좌장 1, 패널 6)

성명	소속	성명	소속
김영찬	(좌장) 시립대 교수, 前 교통학회장	박대순	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
호육진	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	강갑생	중앙일보 기자
윤영한	한국기술교육대 교수	박용훈	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
구 상	국민대학교 교수		

**2 세부 일정**

시간		내용	비고
13:40~14:00	'20	○ 참석자 등록	
14:00~14:10	'10	○ 개회 및 인사말씀	황희 의원, 국토교통부 제2차관, 교통안전공단 이사장
14:10~14:40	'20	○ 주제발표 : 번호판 개선 추진경과 및 도출(안) * 국민 여론조사 결과 포함	교통안전공단
14:40~14:50	'10	○ 휴식	
14:50~15:40	'50	○ 패널토론	주재 : 좌장
15:40~16:00	'20	○ 방청객 질의·답변	
16:00		○ 폐회	

**참고2**

**번호판 시안별 국민 여론 수렴 결과**

**등록체계**

	숫자 추가	한글받침 추가
구분		
온라인	78.1 %	21.9 %
갤럽	62.1 %	37.9 %

**디자인**

	현행방식	변경방식
구분		
온라인	42.6 %	57.4 %
갤럽	47.0 %	53.0 %

**서체**

	현행서체	변경서체
구분		
온라인	44.5%	51.2 %
갤럽	32.2%	67.8 %